

<http://www.oointment.co.kr>

< 달이 되어 >

작사 : 배기성

작곡 : 배기성

노래 : 배기성



가슴 아파 울어서도 안 되니 너를 보고봐도 안 되니
너를 불러도 아무 대답 없는 슬픈 그대여
운명 같은 나의 사랑이라도 가질 수가 없잖아
보이지 않게 뒤에 있을게 평생 그림자처럼 살게

나 어찌니 너무 울어서 울어도 이젠 눈물이 나오질 않아
죄인처럼 고개 숙인체로 너를 삼키면서 울고만 있어

너를 비추는 달이라도 될 수 있다면 웃으면서 떠나 갈 텐데

가슴 아파 울어서도 안 되니 너를 보고봐도 안 되니
너를 불러도 아무 대답 없는 슬픈 그대여
운명 같은 나의 사랑이라도 가질 수가 없잖아
보이지 않게 뒤에 있을게 평생 그림자처럼 살게

해가 지는 건 혼자 남은 너를 남기고 달이 되어 비춰주는 것

가슴 아파 울어서도 안 되니 너를 보고봐도 안 되니
너를 불러도 아무 대답 없는 슬픈 그대여
운명 같은 나의 사랑이라도 가질 수가 없잖아
보이지 않게 뒤에 있을게 평생 그림자처럼

사는 게 너무 그리워 닿으려도 닿질 않아 아득한 그리운 나의 사랑아
한번만 나를 바라봐 한번만 나를 안아줘 꿈속이라면 영원히 그대와 잡들고 싶어

가슴 아파 울어서도 안 되니 너를 보고봐도 안 되니
너를 불러도 아무 대답 없는 슬픈 그대여
운명 같은 나의 사랑이라도 가질 수가 없잖아
보이지 않게 뒤에 있을게 평생 그림자처럼 살게